CONTENTS

2 이사장 인사글

4 부이사장 인사글

6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8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건희 상임이사 인터뷰

10 제 21차 정기총회 경과보고

13 실개천과 금강 1

20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10

26 정책&이슈

29 사업소개 - 각 네트워크 2022년 사업계획 소개

38 대청호 뉴스&뉴스

39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 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33

발행일 2022. 3. 17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표지이야기 : 맑은 대청호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 이처럼 각 네트워크는 주민들과 화합하여 2022년을 알차게 보내려 합니다. 각 네트워크 사업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있어 큰 힘의 원동력입니다. 2022년 각 네트워크의 사업소개가 궁금하다면 꼭 보러 오세요~!(관련 지면 30~37쪽)

글 **최병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사장 / 한밭대학교 총장

21차 정기총회를 마치며…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도 정기총회도 2월 22일(화)에 Zoom 화상회의 형식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한 해 역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사무처 또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했고, 많은 분들의 협조와 불굴의 의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올해 21차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다시 나아갑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전통 있는 단체입니다. 그간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해왔고, 다양한 성과들을 내왔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상·하류 주민 간의 단합된 모습 등을 추구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서화천 및 회인천 유역에서 주민참여형의 거버넌스가 활발히 역할을 해왔고, 각 지역 네트워크 및 하천감시 활동도 유의미하게 이어져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는 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더 큰 포부를 품고,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20주년인 올해에도 대청호 수질개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윤재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부이사장 / K-water 금강유역본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출범 20년… 앞으로 20년을 향해

사랑하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나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준다 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모두에게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청권 450만 명의 주요 상수원인 대청호만을 바라보고 불철주야 달려오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족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대청호에 전국 최초로 조류 대 발생이 발령되면서 대청호와 인근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2002년 4월 11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출범하여 올해로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새해 임인년에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그간의 노력과 더불어 언제나 맑고 푸른 대청호가 될 수 있도록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대청호운동본부 가족여러분! 다시 한 번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신언석**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부이사장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인사 드립니다!

"보다 아름다운 눈을 위하여, 보다 아름다운 눈물을 위하여,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사라지는 것만이 남을 만한 진리임을 위하여 … 오오, 지상의 신(神)이여! 오오, 지상의 시(時)여! (地上의 時 김현승)

김현승님의 시를 명상하고자 쓴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만들어가야 할 이상향이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해서 옮겨 본 것에 불과합니다.

십 수 년 전에 진행되었던 무자비한 4대강 사업 추진에 상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본 본부 이사직을 사임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꽤 오랜 기간 기피했었습니다. 세월이 약이었을까요? 이후 다시 이사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 수 년 인데요, 부이사장 직책까지 부여받게 됐네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인 듯싶어, 그리고 시대의 소명이구나 싶어 수행하자 했습니다.

사실 본부 사업에 애정이 많습니다. 수자원공사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대청호에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은 물의 소중함과 그 소비 대상의 생명권이 중요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글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20년 동반자, 이건희 상임이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건희 상임이사 인터뷰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20주년을 함께해 온 이건희 상임이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3월 중순에 사무실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건희 상임이사 약력

• 2002. 06 ~ 2022. 03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국장, 사무처장, 상임이사
•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상임이사 (현)
• 5대강유역협의회 댐위원장 (현)
• 대전세종연구원 이사(현)
•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현)

충남 보령시의 아들로 태어나 각종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다.

이건희 상임이사의 살아온 발자취를 들어보았다.

"저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의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농사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바닷가 개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박하지도 잡았습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대전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의 서부 터미널에 내려 자취방을 향하던 길에 수많은 교회 십자가 때문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 수많은 교회는 어디에서 왔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 시 IMF 구제금융 여파로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1999년 대전 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에서 2년간 일하면서 실업자, 노숙자, 자활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2년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 일을 시작하며 환경운동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과 함께했었던 지난날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 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여쭤 보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상류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던 활동입니다. 대청호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진심이 통해서 좋았습니다. 대청호보전 우수마을이나 대청호한마당 사업은 현재 예산상의 이유로 진행

을 못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청호한마당 첫 행사 때는 2명의 활동가가 100여 개의 현수막을 직접 대청호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당시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상류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던 활동들이 가장 기억 속에 남습니다."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창립 목적에 맞게 나아가기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자랑스럽게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 과정에서 국가물관리위원이라는 과분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통합 물관리와 유역 단위의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그간 생활공동체 운동과 더불어 소유역거버넌스 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 바로 유역 단위의 참여형 물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역, 소하천 단위의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활동을 지속하면서 중권역을 형성하는 방식의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대청호와 연관된 각종 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거버넌스 조직인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창립 목적에 맞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수자원공사와의 협력시스템을 재점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창립 당시부터 현재 2022년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파트너쉽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초기 범국민적인 수질개선 실천 운동 정도에 머물렀던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시범사업 제안을 통해 물 운동의 흐름을 바꾸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와의 협력모델은 20년 전과 비슷하거나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왜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한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환경문제에 관한 생각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작은 실천과 정책감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청호 인근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할 방법들이 많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로컬푸드의 실천 등이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제가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조직입니다. 올해 2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의 20년을 잘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장 활동가와 주민들 모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건희 상임이사의 진심들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지만 퇴임을 하게 되는 상임이사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이건희 상임이사의 그간 노력과 활동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물론, 이건희 상임이사의 앞날을 응원해본다.

글 김문석 대청호유역하천센터 팀장

제 21차 정기총회로 20주년의 큰 포부를 열다

지난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21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지난 20차 정기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기총회 또한 코로나 19확산의 우려로 비대면 회의인 Zoom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대면회의로 진행되지는 못했어도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접속을 해주어 열기 있는 총회가 되었다. 한밭대학교 회의실에서 최병욱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사무처 활동가들, 각 네트워크 관계자들,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함께 했다.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근 박사의 힘찬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다. 이어 2021년 지역네트워크, 정책연구위원회,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사무처의 활동 영상이 멋지게 소개되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회의실까지 전해졌다. 이어 최병욱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참석회원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나 올해 눈에 띄는 모습은 공공기관 관계자의 이사변경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올해 20주년에는 민관이 자주 소통하고 연대력이 더욱 끈끈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올해에도 대청호지킴이상 수상이 이루어졌다. 대청호지킴이상은 각 분야에서 대청호 보존을 위해 힘써주시고 모범이 되는 분들을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에는 무주의 하굴암마을 송영곤 대표, 금산 양성규 하천감시단원, 영동 권호성 하천감시단원, 옥천 박상기 하천감시단원, 보은 주여원 하천감시단원, 대전 이재용 하천감시단원, 청주 묘암리마을 강호정 대표, 천안 북면위례마을 김영세 대표, 금산네트워크 김청자 팀장, 금강유역환경청 권미영 전문위원, K-water 대청댐지사 김병헌, 최흥자 대청호해설사 총 12명이 수상하게 되었다.

이어 감사패에서는 대청호 물사랑지킴이단 환경동아리 활동을 1년 내내 열심히 해온 대전외삼중학교, 대전제일고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이어 2부 정기총회가 시작되었다. 영동네트워크 팀장인 이미나 회원이 서기로 선출되었고, 임정미 사무처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총회준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안건으로는 2021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2021년 사업 및 재정보고 승인의 건, 정관개정의 건, 임원선출의 건, 2022년 사업 및 재정계획 심의의 건이 상정되었다. 의안1호, 의안2호는 별다른 이견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의안3호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통해 본부 활동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금의 지원통로 확장을 위해 제 43조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

용을 추가하였다. 이 또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금강유역환경청 전동하 팀장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가 되지 않도록 회계 관리의 철저함을 당부했다. 날카로운 조언과 함께 의안 3호도 전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의안4호 임원선출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되어 부이사장으로 윤재찬 K-water 금강유역본부장, 신언석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선출되었고, 맹승진 정책연구위원장, 김동진 K-water 대청댐지사장, 이가희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희옥 무주군 부군수, 이종규 금산군 부군수, 정진원 영동군 부군수, 권영주 옥천군 부군수. 최경환 보은군 부군수,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이지선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 이은학 대전동구 부구청장, 이종현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장이 새로 선임되었다. 의안5호는 2022년 사업 및 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원안대로 승인되어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다.

이어 폐회를 선언하고 그간 연구 활동에 힘 써온 배병욱 정책연구위원장, 20년 근속을 한 이건희 상임이사의 공로패 수상이 있었다. 이 두 분의 헌식적인 노력을 높이 사며,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로서 정기총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작년 한 해는 위기와 고난의 시기였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를 극복하고 20주년인 올해 당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글 문광연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 시인의 생가 앞 실개천입니다

우리 집에서 충북 옥천을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용, 버스, 기차입니다. 오래전부터 옥천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정지용 시 '향수' 노래를 듣고 빠져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몇 번이고 옥천을 다녀왔습니다. 20년이 흐른 후 요즘 와서 다시 옥천이 그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안개가 자욱합니다. 조금 있으니 안개가 걷히면서 따스한 햇살이 보입니다. 바로 짐을 챙겨 출발했습니다.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올 때는 기차를 타고 오려고 계획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실으니 모두 어르신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버스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옥천은 충북이지

금구천과 서화천이 만나는 곳입니다

봄을 알리는 새싹입니다

만, 생활권은 대전인지라 주민들이 대전으로 와서 볼일을 보고 갑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삼양사거리, 이곳에 내려보니 좌측, 우측 가운데로 하천이 보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 봅니다. '하천삼거리'. 금산 쪽에서 나오는 물과 옥천 읍에서 나오는 물이 만나서 대청호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두물머리입니다. 대청호로 직접 들어가는 물이니 우리가 먹는 대청호의 수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하천이지요.

옥천 읍 정지용 생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갑니다. 차를 타고 많이 다닌 길이지만 이렇게 걸어가니 색다른 맛이 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2일, 계절상 추운 날이지만 영상 10도를 유지하여 내복과 목도리,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몸인지라 조그만 걸어도 땀이 납니다. 조금 올라가니 작은 실개천이 보입니다. 요즘 비나 눈이 오질 않아서 물이 없습니다. 향수 100리 길로 접어듭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길을 잘 만들어 놓아 자전거 타기, 걷기가 참 좋습니다. 조금 가니 논이 보입니다. 논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내년 봄이 오면 이곳에는 주변에서 개구리들이 모여 울 것 같습니다. 무논을 보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논두렁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겨울인데도 파란 잎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개천을 따라 조금 위로 올라가니 논 위의 녹색 그라운드가 보입니다. 논에 보리를 심어 싹이 난 것입니다. 보리는 저온처리를 해야 이듬해 보리가 충실하지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보낸 후 봄을 맞이하지요. 산에도 들에도 겨울이라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들만 보이는데 논 한가운데 새파란 보리 싹을 보니 새봄이 온 느낌입니다.

죽향 1리, 큰 돌에 조각을 새긴 글귀가 보입니

죽향1리 표지석입니다

정지용 시인이 다닌 죽향초등학교입니다

다. 죽향은 대나무의 향기, 옛날 이곳에 대나무가 많이 살았나 봅니다. 동네 이름이 참 정겨워 보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죽향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운동장은 넓고 모두 흙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우리 식구는 이곳에 가끔 놀러 왔습니다. 나와 아내 그리고 딸, 아들 이렇게 넷이서 운동장에 넓게 서서 서로 공을 차고 놀았습니다. 운동장 한 쪽에는 아주 오래된 교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지용 시인이 공부하고 졸업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대나무 향기를 맡고 실개천을 보고 자라면서 감성을 길렀겠지요.

실개천은 학교 앞을 지나고 동네를 지나갑니다. 동네의 실개천을 지나는 곳에 정지용 시인이 살았다는 생가가 보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 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옥같은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는데 온 국민이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과 성악가들이 불렀지요. 시 구도 4절로 되어 있으니 노래 만들기는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감성적인 시인이지만 어떻게 이런 시어를 만들고, 훌륭한 작

개구리 상입니다

거북이 상입니다

품을 만들었을까요? 읽어도, 읽어도 정감이 가는 시입니다. 실개천 주변의 조형물에는 개구리와 거북이도 보입니다. 모두 물을 좋아하는 동물이지요.

시인의 생가는 볏짚으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보니 어린 시절 시골집이 생각납니다. 농사가 다 끝나고 볏짚을 모아 동네 어른들이 이엉을 엮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집씩 돌아가면서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단장하지요. 이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으로 엮는 이엉과 양쪽으로 엮는 이엉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엮은 이엉은 비를 막아주는 주된 역할을 했으며, 양쪽으로 엮은 이엉은 지붕의 꼭대기나 흙 담의 지붕으로 이용했습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게 새끼로 꽁꽁 묶어 두었지요. 이런 지붕은 참새들에게 안성맞춤 집이 되었습니다. 처마 밑에 구멍을 뚫고

정지용 시인의 생가입니다

들어가 집을 지었습니다. 생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시인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개천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니 지용문학공원이 보입니다. 연못, 광장, 산책로를 걸으며 시인을 생각해 봅니다. 문학공원이 끝날 때쯤 고개를 넘어가면 새로운 풍광이 나타납니다.

큰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물은 조금씩 넘쳐 아래로 흘러 죽향 마을의 실개천을 이룹니다. 저수지의 갈대밭에도 정지용 시인이 노래한 황소 등의 조형물이 보입니다. 호수 물은 잔잔하고 거울 같아서 주변의 산과 마을들이 그대로 비칩니다. 마을 뒤쪽에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이 있고, 양지쪽에 마을이 있으며 앞에는 넓고, 넓은 호수 같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뒷산에서 발원한 개울물은 호수에 모여 시인이 노래한 실개천을 휘돌아 나갑니다.

실개천은 마을을 지나면서 생활하수와 만나 오염이 시작됩니다. 수량도 부족하고 오염물질을 만나니 옥천 읍을 지나는 금구천과 만날 때는 더 안 좋습니다.

실개천이 시작되는 방죽입니다

옴개구리입니다

금산의 국수봉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서화천과 만납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되면서 수량이 줄어듭니다. 수량이 줄어드니 녹조류가 번성합니다. 대청호는 실개천이 모여서 거대한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시인 정지용이 노래한 실개천이 깨끗해야 대청호도 깨끗하지요.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실개천은 옥천읍내에서 나오는 금구천과 만나며 금구천은 다시 서화천을 만나서 대청호로 들어갑니다. 이런 작은 하천에는 등이 갈색이고 오돌토돌한 무늬가 있는 옴 개구리들이 살아갑니다. 실개천, 금구천, 서화천, 대청호는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시인이 노래한 '고향'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진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메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돌아오는 길은 무궁화호 기차를 탔습니다. 저 멀리 초록의 하늘과 흰 구름이 보입니다. 대청호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 참고문헌
『금강길 이야기길』 최수경, 이담Books
『향수』 정지용, 이음문고

글 **여규용** 6기 대청호 해설사

임인년 대청호활동을 미리 점검하다

명상공원길 풍경

어느새 해가 바뀌었다. 지난 한 해의 소중했던 기억들은 모두 추억으로 간직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이 즈음엔 누구나 가슴에 약간의 후회와 큰 기대감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떤 일들은 소중한 기억으로 어떤 일들은 아픈 기억으로 각자의 마음에 기억되어 있을 것이고, 언젠가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날 있을 것이다.

회의 모습

벌써 3월이다. 한겨울부터 분주하게 봄을 준비해온 숲과 나무들은 생동감이 느껴진다. 찬바람 맞으며 대청호변을 걸어 보았다. 여전이 푸근한 아버지 품 같은 곳이기에 생각이 정체 되어 있는 날엔 이곳을 찾곤 한다. 오랜만에 해설사 동료 몇몇과 대청호를 걸었다. 아직 날씨는 차지만 호수를 건너오는 바람 끝은 봄을 담고 있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실도 이전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터라 그곳도 방문해 볼 겸 나선 길이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처장님과 이사한 사무실을 둘러보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차담을 나누었다.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것이 사람 사는 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이야기꽃으로 더 정이 쌓이고, 하는 일과 건강을 서로 챙겨 주는 일이 참 정겹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작년 일 년을 보내면서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든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각자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분주한 일상인데 수시로 바뀌는 스케줄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난 일 년을 돌아본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일들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중심으로 올해를 준비해야 한다. 팀별로 꾸준히 노력해온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고 활동 폭이 넓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청호 해설사에는 오백리길 걷기 팀, 플로깅 팀, 사진문학 팀, 프로그램 개발팀 등이 활동을 한다. 이런 팀들이 힘을 모아 두 번의 환경 사진전을 열었다. 첫 번째는 2021년 상반기에 '생명 다시 살아나다'라는 주제로 하였고, 두 번째는 '걸어야 보이는 풍경'이라는 주제로 약 한 달간의 사진전을 명상

공원길에서 개최하였다.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고, 명상공원길을 걷는 시민들의 호응도 참 좋았다. 우리가 먹는 물 대청호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다시 보고 그 이면의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사진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들 크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몸에 배인 습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환경 사진전을 준비하기로 했다. 주제를 공모하고 팀별로 사진을 제출 받아 멋진 사진전을 계획해 본다. 지난번 했던 사진 판넬은 장소를 옮겨 상시 전시를 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고장의 명소인 대청호를 찾아보았을 것이다. 멋진 쉼의 공간이 가득한 대청호는 우리들 생명의 젖줄이자 휴식공간이다. 이런 곳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우리는 참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에 더욱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곳으로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자, 어렵지 않다. 가정에서는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고,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쓰레기 등은 함부로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대청호를 찾았을 때에는 가지고 온 쓰레기는 꼭 다시 챙겨가서 제대로 버리도록 해야 하고, 대청호를 걷다가 눈에 띄는 쓰레기들이 보인다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 주었으면 좋겠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함부로 꺾지 말고, 눈으로 보며 즐기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 사항들은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다고 본다. 그리고 습관들이기에 달렸다고 생각 한다.

명상공원길 풍경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전해 오는 지구상의 각종 재난들을 듣고 보아서 알고 있다. 기후위기라고 하며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도 한다. 알게 모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구는 이 세상에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산불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 누군가 실화로 불을 냈던, 일부러 방화를 했던 그 피해는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산불이 나면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자. 산불지역에는 생물다양성이 무너진다. 풀과 나무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곳에 살던 동물들도 생존하지 못한다. 그렇게 파괴된 생태계가 다시 복구되려면 짧게는 수 십 년 길게는 수 백 년이 걸려야 가능하다고

명상공원길 풍경

한다. 더구나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큰가? 산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이유는 두껍게 쌓인 낙엽으로 불씨를 완전히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거기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발화도 쉽고, 한번 불이 나면 크게 번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불로 인한 연기 또한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하다. 공기 중의 탄소 층을 더욱 두텁게 하여 햇볕을 차단하고,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생각 할 수가 없다. 복합적이고 생활 모두가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내가 환경교육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올해에는 우리 해설사 활동도 대폭 개선 될 전망이다. 대청호를 중심으로 펼쳐질 해설활동을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위기에 동참하도록 하고자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망설이지 말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자는 생각이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함

명상공원길 작은 연못

삼정동 생태공원

께한다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하다. 올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것들을 정리해 본다. 얼마 전에 세종시에 위치한 자원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다. 우리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는 일상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배출을 하기 위하여 실천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센터에 가보니 문제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분리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들을 다시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음을 보았고, 그것을 다시 분류하기 위한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눈에 거슬리는 것은 음식 찌꺼기가 깨끗하게 닦아지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들이 수두룩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아직은 한참 뒤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분리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

환경 교육은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그것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한다더라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 지구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것이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살피고 이끼는 물 한 방울은 말 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자원이기도 한 것이다. 요즘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 옥천지역 수역에 배를 띄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광목적이 아닌 생활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작은 그리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관광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이다. 대청호에는 근본적으로 상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는 등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상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청호 해설사들이지만 대청호 지킴이 활동도 한다. 아이들을 인솔하여 대청호 유역을 탐방하며, 그곳의 생태자원을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환경 속에서 생물 다양성을 공부한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위반하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고민한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보여 지는 행동이 일체가 되었을 때, 교육 효과가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면 아무리 열심히 환경을 이야기하고, 지켜 가자고 하여도 되지 않는 것이다.

올해도 분주하게 대청호 보전 활동을 이어 갈 것이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진실을 다하여 우리가 먹는 물을 지키고, 아껴야 할 이유를 대청호를 찾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것이다. 대청호 환경을 알려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올해도 사진 문학전을 준비한다. 대청호 유역의 환경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차라리 유람선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은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중 일부 조항을 반대하며

지난 1월 19일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는 유·도선 사업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동력선 등 친환경 선박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된다. 그런데 환경부의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제11조 제2항 2호에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이 있다.

개정안 제11조 제2항 1호에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명확하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2호를 둔 이유는 유람선 등 개발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호에서도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라는 문구가 나오고, 1호와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2호를 별도로 신설하는 이유는 2호에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포함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증대라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소득 증대'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가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마을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선을 통한 영농활동,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옥천군에서 지난 1월 20일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는 도선이 아닌 유람선 등 개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옥천군은 보도자료에서 대청호 생태관광지역(안터지구 : 옥천읍 수북리, 동이면 석탄리, 안내면 장계리, 안남면 연주리 등), 장계관광지, 옥천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조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위 지역과 관광지들이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겉으로는 도선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유람선 등 개발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기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지난 2월 10일, 개정안에서 제11조 제2항 2호를 전체 삭제하거나 최소한 '소득 증대' 부분을 삭제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반대의견을 제출한 이유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배를 운항하고자 한다면 대청호 상하류 지자체와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선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교통 불편 지역이 어디인지, 도선을 이용할 수요는 얼마나 될 것인지 등의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이러한 연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도선 운항을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런 것이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도선이지만 실제로는 유선(유람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유선(유람선) 사업을 허용하자고 밝히고 그에 맞게 개정안을 제출하고 공론화 과정

을 거치는 것이 솔직하다는 생각도 든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3월 중에 정책연구위원회 주최로 지자체, 전문가,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여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대청호의 보전과 친환경적 활용에 있어 의미 있는 주제인 만큼 활발한 공론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현행 및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1조(유 · 도선사업 등) ① ㅣ권역에는 다음 각 호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허가·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제11조(유 · 도선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친환경선박(전기 태양광 · 수소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경우 2.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하여 선착장 설치 운영계획(규모, 위치, 접근로 등을 포함한다), 도선 운항계획(운항척수, 승선인원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 쓰레기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무주네트워크 사업 소개

글 **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2022년 무주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회관은 폐쇄가 되었고 잠시 일상생활에도 멈춤이 있어 사업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무주 네트워크에서 진행할 첫 번째 사업의 내용은 1, 2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소유역거버넌스 사업**입니다. 올해 소유역거버넌스 사업 대상지 마을은 대청호로 직, 유입되는 남대천과 가당천 두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 2곳 마을은 하천 중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고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유역거버넌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하천변 쓰레기 투기 장소, 소각장소를 주민들과 말끔히 정리하고 예쁜 화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농촌에서 필요한 농로에 버려진 농약 빈 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농약 빈 병 분리수거함과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수거함도 함께 설치 진행합니다. 또,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병행하면서 의식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환경개선 및 수질개선을 위해 친환경제품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회원마을 가꾸기 사업**은 해마다 마을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습니다. 의지가 높고 관심이 높은 회원마을 다섯 군데를 선정하여 펼쳐진 올해 사업은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환경교육과 정기적인 정화활동, 마을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EM흙공 던지기, 주민들과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고, 써 봄으로써 주민들에게 환경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량천 맑은 만들기 사업**은 무주네트워크와 간사단체 회원,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여 EM흙공을 만들고 발효되는 과정을 거쳐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하천에 투하 진행할 예정이며, 도랑에 외래 풀 제거 및 정기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학생들과 진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노력", 일상 속 작은 실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리 함께 해요!"라는 환경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예전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과 대청호 맑은 물 만들기 사업 진행이 되길 바래봅니다.

금산네트워크 사업 소개

글 **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2022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는 추풍천소유역거버넌스 사업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자연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추풍천정화작업과 사단법인 정심회 중심으로 진행하는 추풍천유역 가시박 제거작업이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유역에 있는 회원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산고등학교 생태동아리skype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생태환경탐사단활동과 금산네트워크 주관단체인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인 친환경농업실천마을 만들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며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물 환경, 자연환경의 건강한 생태계 관리의 소중함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금산네트워크는 2022년 더욱 건강한 생태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화천 소유역거버넌스

글 **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2022년 영동 네트워크에서는 소유역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법화천소유역거버넌스"를 확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법화천을 중심으로 용산면과 새마을회 및 부녀회,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천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 해보려 합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법화천소유역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용산면의 새마을회와 부녀회원들과 함께 했던 빈 농약병 수거와 하천정화 활동은 저에게 많은 의미를 남겨주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하여 맡게 된 업무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농약병을 분리하고 수거했던 그날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고 뿌듯했습니다. 마을에서 수거된 농약병들을 포터에 가득 실어오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분리하고, 왕겨자루에 모아 옮겨 담고 했던 햇살 좋았던 가을날 이였습니다. 그 결과, 농약병 690kg, 농약봉지 110kg를 수거 했습니다.

올해에는 이 같은 사업은 물론, 더 많은 분들과 동참하여 꾸준히 해오고 있는 하천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하천 가꾸기와 마을 만들기를 할 것이며, 환경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환경의식개선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휴가철에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으로 현수막을 통한 홍보 및 계도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는 날씨에 올 한 해에도 보람된 일들을 많이 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소유역거버넌스 “안내천협의회”

글 **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옥천네트워크는 2022년 사업을 소유역거버넌스의 추진을 위해 “안내천협의회”를 진행합니다.

대청호 직유입 하천의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으로 안내천을 중심으로 안내면 동대리, 방곡리, 안내면 일대 농약병수거를 진행합니다.

안내천 마을을 직접 관리하여 소유역단위의 하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려 합니다.

“안내천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수질개선 실천 활동을 전개하며 중장기적으로 안남, 안내천 협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안내천협의회”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별 정화활동, 환경교육, 회의, 농약병 수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을별 정화활동 3회, 환경교육 2회(마을 내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가축분뇨 처리 방법, 친환경세제 만들기), 안내면 일대 농약병 수거 2회, 회의 등이 있습니다.

안내면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마을별 정화활동 및 농약병 수거가 잘 이루어지는 마을로 “안내천협의회”를 진행함에 있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월부터 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내천협의회”는 대청호직유입 하천의 수질개선 실천 활동 및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마을가꾸기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주민이 직접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옥천네트워크의 모든 사업이 원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보은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활동

글 **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보은네트워크에서는 소유역거버넌스를 통한 내 고장 청청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마을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 운동 강화에 사업목표를 두고,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보은네트워크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유역 거버넌스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회인천을 중심으로 회남면 회원마을 중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 할 수 있는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및 하천 정화활동을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 4회, 친환경제품 만들기 및 환경교육 4회, 녹조의 원인인 버드나무 제거 작업하기 1회, 회인천(불법낚시터)주변 정화활동 2회, 대청호 주변 불

법쓰레기 투기지역 현수막 설치 15회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대 효과로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대청호수질 개선에 동참하며,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교육을 통한 친환경생활화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선진지 견학(생태문화탐방)

선진지 견학(생태문화탐방)을 통하여 회원단체, 회원마을, 보은네트워크 구성원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지역 자연생태보전을 경험하므로 우리고장의 생태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맑은 하천 만들기(보청천, 성족천)

회원마을과 환경연합 보은지부 회원들이 주관이 되어, 우리지역 하천 중 보청천과 성족천 정화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하천도 살리고, 생활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 활동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나아져서 예전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거버넌스사업 중심으로 회원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 활동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원천 소유역거버넌스 운영 및 대청호 상하류 도농교류

글 **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안녕하세요. 2022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실무를 맡게 된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활동가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네트워크 참가단체, 회원마을과 서로 협력, 교류하면서 소통하는 대전네트워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대전네트워크에서는 '주원천 소유역거버넌스 운영 및 대청호 상하류 도농교류'라는 사업명으로 총 4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2022년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주원천의 소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참여 유역협의체를 구축하고, 대청호 유역 회원마을의 참여 활성화와 수질개선을 위한 실천운동 및 주민 환경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및 대청호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대청호 친환경농산물보따리 및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입니다. 대청호상류지역 친환경농가로 구성된 생산자조직을 활성화하고, 제철 농산물보따리 직배송, 직거래장터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산시켜 대전시민의 상수원인 대청호를 보전할 수 있는 생명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대청호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농촌체험 및 농촌봉사활동 활성화, 직거래 활동 등을 통해 로컬푸드 및 대청호 상류지역 농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을 통한 대청호 상류지역 로컬푸드 및 지역 농가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대청호 유역주민들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환경마당극을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대청호 환경마당극 제작 및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마당극 기획 및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전네트워크의 다양한 행사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잘 기획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대청호 보전활동들이 올해는 각 분야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네트워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주네트워크 사업 소개

글 **최정민** 청주네트워크 팀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는 대청호의 물 환경 보전과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6개 마을주민, 시민환경단체, 행정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주민주도의 물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는 문의권역 소유역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무국 중심의 사업진행이 아닌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소속 기관 및 단체의 활동력과 주민과의 교류를 확대

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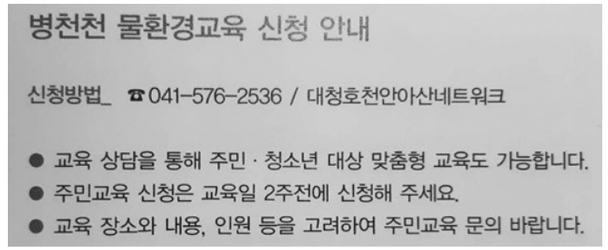
또한 마을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의권역 주민하천관리단 운영을 통해 오염원에 대한 감시, 저감, 주민홍보, 교육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올해 주민하천관리단 활동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의지역 상류인 마동, 묘암리와 구룡리, 노현1,2리, 괴곡리, 두모리 마을의 주민들이 결합하여, 월 1회 정기 활동과 비정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청호의 물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부문에 대한 일상적인 대응과 대안마련 등 정책현안 대응도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2년 대청호 청주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구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 사업 소개

글 **이상명**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올해 천안아산네트워크는 병천천 소유역 인근 마을주민 조직인 천안위례마을살이에서 간사단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이어 병천천 인근 학교, 행정, 주민모임과 정책 개발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소유역거버넌스를 운영하고, 네트워크 소속 환경, 생태운동 단체들이 개발한 물 환경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주민교육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광덕산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 주민 등이 참여하는 물 사랑 교육과 수질 개선을 위한 물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생태 하천인 대청호 수질보전 의식을 높이는 물 사랑 실천교육 자료집을 제작 및 보급할 것입니다.

천안위례마을살이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병천천 지역 특성을 이해하는 소유역거버넌스를 안착화하기 위해, 병천천 인근 오염원을 조사하고, 생물지표 조사 등 하천 감시 활동과 쓰레기 수거, 병천천(북면), 산방천(목천읍), 관성천(병천면)의 주요 오염원 지점 4~5군데를 지정하여, EM 흙공을 이용한 정기적인 수질 개선 활동과 공유지 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옥천 '육지의 섬' 오대리 주민들,
산 넘고 물 건너 소중한 '한 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대청호 변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옥천군 옥천읍 오대리 주민 5명도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마을 앞에서 2.8t급 철선을 타고 대청호를 건넌 뒤 오지 교통수단인 다람쥐 택시를 타고 약 3㎞ 떨어진 옥천읍 제2 투표소(죽향초등학교)까지 와서 투표를 마쳤다.

현재 이 마을에 사는 주민은 12세대에 16명이다. 전원이 유권자이나 대부분 지난 4~5일 시간을 내 사전 투표했다. 주민은 선거 때마다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다.

대청호 변 또 하나 '육지의 섬'인 막지리에서 생활하는 주민 14명은 모두 사전 투표해 이날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세원(71) 씨는 "투표소 가는 길이 멀지만,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고 했다.

【충북일보】 2022. 03. 09. 김기준 기자

대청호 관광시설 조성사업 본격 추진

대전 동구가 올해 생태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청호반을 중심으로 '대청호 관광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로 관광객들의 공간인 산책로 및 쉼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한 쾌적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동구를 완성하는 게 목표다.

구는 올해 민선 7기 시작부터 설정한 슬로건 '관광으로 일어서는 대전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대청호 관광시설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신촌한터, 마산한터, 벚꽃 코스 억새 숲 및 누리길, 충암누리길에 대한 조성공사 및 실시설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광객의 공간인 산책로 및 쉼터 조성이 중점이다.

이 중 신촌한터 조성사업은 대청호오백 리길 5구간인 신촌동 일원에 관광객이 머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약 3억 원이 투입된다.

구는 약 3000㎡ 크기의 한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31일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벚꽃 코스 억새 숲 및 누리길 실시설계는 오백미(벚꽃 코스) 경관개선 및 산책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계 용역이다.

신상동 674번지 일원에 억새 숲을 조성하고 벚꽃 코스 산책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목표다. 시비 약 1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용역비 900만 원을 들여 오는 31일에 실시설계가 예정됐다.

마산한터 조성공사는 대청호 수위 상승과 관계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추진된 마산 누리길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진행된다.

공사를 통해 마산동 일원에 약 4000㎡ 크기의 한터가 조성되며 공사비 약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5월 21일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충암누리길 조성사업은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26.6㎞)'인 오동선 인근에 수변데크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 24일 용역비 37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에 나선다. 이후 결과에 따라 누리길 1100m, 정원 5000㎡, 습지 2000㎡에 이르는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관련 사업들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발전시켜 관광 동구를 완성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올해 안으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대청호 관광시설 조성사업으로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대청호반을 즐길 수 있게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일보】 2022. 03. 01. 심효준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기초' 소식

대전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 독수리, 대전 갑천에서 처음으로 확인

대전 갑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수리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전날 갑천 모니터링을 통해 신구교 인근에서 비행 중인 독수리 15개체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독수리는 과거 자연환경조사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조류 모니터링에서도 확인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발견된 것은 최초다.

확인된 15개체는 별다른 먹이활동을 하지 않은 채 선회비행을 하다 대청호 방향으로 이동 했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수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준위협(Near Threatened) 종으로 지정한 국제보호조류다.

겨울철 하천과 하구 해안을 찾아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기 때문에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가 아닌 분해자 역할을 맡는다.

독수리는 주로 몽골지역에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위에 둥지를 튼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개체 수는 약 1700개체로 매년 경기도 파주·강원도 고성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월동한다.

대전·세종 지역에서는 매년 세종시 합강리를 중심으로 월동하는 개체 20~30마리가 확인된다. 이번에 확인된 독수리 역시 합강리에서 월동하는 개체가 잠시 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향후 대전지역의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복원을 실시해 서식처 복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독수리가 대전지역을 먹이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옥천군

대청호 낀 옥천군, 축사 허가 '신중'… 법원도 잇따라 제동

대청호를 낀 청정지역인 충북 옥천에 축사 건축 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

환경오염을 우려한 옥천군의 불허 처분에 축산업자들이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 역시 군의 손을 들어주며 제동을 걸고 있다.

16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2월 동이면 세신리에 1천897㎡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옥천군은 우량 농지 보전 필요성, 소음·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 축사 집단화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A씨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인데다가 옥천군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옥천군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량농지 훼손 방지,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축사 신축에 따른 사익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옥천군은 이 사안 외에도 작년 한 해 동안 5건의 축사 신축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 모두 승소했다.

축산업자들은 주변에 마을이 없고 조례에 정해진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옥천은 축사 악취에 유달리 민감한 지역이다.

여름철이면 옥천읍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

2020년 말 한 축산업자가 축사 2곳의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하자 "악취가 심해질 수 있는데 왜 허가해 줬냐"는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옥천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 신축 돈사를 면적과 관계없이 민가에서 1천m 이상 떨어지도록 조처한 데 이어 신축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사 건축 허가 신청 땐 환경훼손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으며 불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구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위례마을살이,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